

2000년대의 레저산업

서 천 범 (기아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I. 개 황

레저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000년대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어느 그룹의 회장은 '21세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레저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저부문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통산성은 물론 스탠포드, 노무라, 미쓰비시 등 세계적인 경제연구소들도 레저산업을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꼽고 있다. 즉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자유시간이 늘어나며, 일보다는 레저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레저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자동차 보급의 확대 등으로 레저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레저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9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레저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상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레저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레저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자체 실시 이후 지방정부도 稅收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들

안 규제되어 왔던 레저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도 국내기업들의 레저산업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레저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레저산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레저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 개발지의 땅값 상승으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레저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레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레저산업에는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고 자본 회수기간도 길어 단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II. 레저산업의 부문별 전망

1. 콘도미니엄

1996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콘도 수는 32개 업체, 62곳에 1만7,660실이며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콘도는 모두 72개 업체, 86곳, 1만7,850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5년말 제주도의 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선정된 9개 업체를 비롯, 현재 콘도업체 진출을 모색중인 대기업들

〈표-1〉 향후 콘도의 객실 수 전망

| | 1996년말 | 2000년 | 2005년 |
|-----|---------|---------------------|--|
| 객실수 | 17,660실 | 14,470실 (공사중 콘도) | 16,000실 (건설계획분 24,000실의 2/3 가 실제 건설된다고 가정) |
| 누 계 | 17,660실 | 32,230실 | 48,000실 |

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은 稅收 확보를 위해 레저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편 콘도업계는 최근 4년간 계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不況의 늪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콘도가 32개소, 5,807실이나 된다.

즉 지난 1990년 이후 5년간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한 총 86개 중 40%가 넘는 콘도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콘도의 객실 수는 1996년말 현재 1만7,660실에서 2000년에는 현재 공사중인 콘도가 완공되면 3만2,230실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국내기업들과 지자체들이 콘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2만4,000실 중 2/3 정도가 완공된다고 가정할 경우, 콘도 객실 수는 총 4만8,000실 정도로 현재보다 약 2.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콘도업계는 분양경쟁이 심화되면서 체인망 확대 등의 생존전략이 시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금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스키장

1) 스키장 수

‘겨울철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스키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우선 1996 스키시즌(95년 12월~96년 3월)은 양적·질적으로 국내 스키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다. 즉 대기업의 리조트 건설붐을 타고 현대성우리조트, 휘닉스파크가 1995년 12월에 개장함으로써 전국 스키장이 11개소로 늘어났다.

그리고 97시즌에는 지산스키장이 96년 12월에 개장함으로써 전국에서 운영중인 스키장은 12개소에 달하고 있고 건설중인 스키장도 2개소이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한국콘도 스키장과 호명산유원지 스키장이 개장해 97년의 스키장 수는 90년의 2배인 14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향후 스키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스키장 입지조건으로 가장 좋은 강원도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탄광촌인 태백시에는 백병산 스키장 등 3곳, 정선군에는 고토일 복합리조트 등 3곳, 그리고 삼척시와 영월군에 각각 1곳 등 총 8곳이 2005년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한솔개발은 원주시 문막면에, 한화국토개발은 춘천시 남산면에 스키장을 각각 건설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극동건설, 동해리조트개발 등도 스키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스키장 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996년말 현재 12개소에 달하고 있는 스키장 수가 1997년에 14개소, 2000년에 19개소, 그리고 2005년에는 30개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스키 대중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기업들의 스키사업 진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럴 경우, 스키장 수는 현재의 예측치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 입장객 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6 스키시즌부터 스키붐이

〈표-2〉 향후 스키인구 전망

(단위 : 만명, %)

| | 1996시즌 | 2001시즌 | 2006시즌 |
|-------------------------|--------|--------|--------|
| A. 스키 인구 | 331 | 700 | 870 |
| B. 전체 인구 | 4,509 | 4,727 | 4,912 |
| C. 스키인구비중 (A ÷ B, %) | 7.34% | 14.8% | 17.7% |

서서히 조성되면서 앞으로 스키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331만명에 달했던 96시즌의 스키인구는 97시즌에 400만명을 돌파하고 오는 2001시즌에 700만명, 그리고 2006시즌에는 8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키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0시즌의 1.31%에서 96시즌에는 7.34%로 높아졌고 2001시즌과 2006시즌에는 각각 14.8%, 1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스키인구의 비중이 1985년의 5.3%에서 90년에는 11.2%, 95년에는 13.5%로 높아졌다.

3) 스키 환경

이처럼 스키붐이 형성되면서 스키인구와 스키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가세로 자금력·운영 노하우 등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들은 자체 레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임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단위 리조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키장 경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키장 경영상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스키장과의 경쟁, 둘째 인건비 상승 및 시설투자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셋째 시간대·요일·계절별 이용객의 편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스키붐이 조성되면서 실내 스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겨울철 스키시즌은 물론 4

계절 운영되고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스키어들을 많이 유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스키도를 건설·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입장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내 스키도는 (주)대우가 인천 송도매립지에 2000년까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3. 골프장

1) 골프장 수

우리나라의 골프장 수는 1996년 12월말 현재 회원제 86개소, 대중 22개소를 포함해 총 108개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은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회원제 47개소, 대중 22개소를 포함해 69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 중 1997년에 개장할 수 있는 골프장은 26개소, 1998년에 개장할 수 있는 골프장은 19개소에 달한다.

또한 지난 1996년 2월 6일 문화체육부의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공사재개 시한에 몰리면서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시작, 30% 미만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24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골프장이 2000년까지 완공된다고 가정하자. 여기에다 1996년 11월말 현재 27개소에 이르고 있는 미착공 골프장과 새로 사업승인을 받게될 골프장까지 건설될 경우, 2000년말의 골프장 수는 21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표-3〉 향후 골프장 수 전망

(단위 : 개소)

| | | 1996.12월 | 1998 | 2000 | 2005 |
|-----|-----|----------|------|------|------|
| 회원제 | 추가분 | - | +30 | +40 | +50 |
| | 누계 | 86 | 116 | 156 | 206 |
| 대중 | 추가분 | - | +11 | +26 | +70 |
| | 누계 | 22 | 33 | 59 | 129 |
| 누계 | | 108 | 147 | 215 | 335 |

〈표-4〉 향후 골프인구 전망

(단위 : 만명, %)

| | 1996 | 1998 | 2000 | 2005 |
|-----------|---------|-------|-------|-------|
| 입장객 수 (A) | 897 | 1,145 | 1,872 | 2,664 |
| 전체 인구 (B) | 4,544 | 4,639 | 4,727 | 4,912 |
| (비중, A÷B) | (19.7%) | (25%) | (40%) | (54%) |

2005년까지는 골프장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향후 건설할 예정인 골프장까지 완공될 경우, 전국의 골프장이 335개소로 현재보다 3배 정도 늘어난다. 전체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0.4%에서 2005년에는 38.5%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 입장객 수

골프장 입장객 수는 1996년에 897만명으로 지난 80년 이후 매년 17.2%씩 성장해 왔다. 특히 1996년에는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과소비 억제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TV방송국의 골프 중계방송, 국내 대기업들의 국제골프대회 유치, 일간지들의 골프면 신설 등이 골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 완화되었다.

게다가 전업(專業)수무들의 가사부담 경감에 따른 레저시간 확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여성들의 골프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6년에 897만명에 달했던 골프장 입장객 수는 2000년에 1,872만명으로 96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입장객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1996년에는 19.7%에서 2000년에는 4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2005년의 골프장 입장객 수는 2,664만명으로 96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나고 전국민의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 골프 환경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골프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골프부킹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 골프장당 입장객 수는 1996년에 8만3,800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8만7,0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7만 9,5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즉 정부는 골프장을 단순한 체육시설로 인식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말고 골프를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비용이 막대하고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을 적극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골프부킹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자체 수요 및 접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골프장 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골프여행도 국내에서의 골프부킹난이 지속될 경우, 해외여행도 즐기면서 골프도 치는, 그러면서도 비용은 훨씬 싼 해외 골프여행이 크게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기본적인 골프장 규모인 18홀에서 벗어나 36홀 이상의 大單位 골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골프장을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골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수입을 늘리고 골프장 이미지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그리고 골프장도 콘도처럼 전국적인 체인망을 형성할 전망이다. 즉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골프장을 인수하거나 그룹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체인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설되는 골프장은 수도권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를 보임에 따라 주로 江原道와 濟州道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 부지난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 폐광지역 등의 불모지를 개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모지 골프장 사업들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면서 골프장 건설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골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리조트

리조트(Resort)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레저시간의 증가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 등으로 레저패턴이 단순 숙박·관광형에서 체류·휴양형으로 바뀐에 따라 90년대 들어 크게 각광받고 있다.

국내 대형 리조트들의 특징을 보면, ① 단지면적이 최소 100만평, 개발예정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200만평을 상회하고 있고, ② 투자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③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며, ④ 리조트들이

대부분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유시간이 늘어나 가족단위의 레저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종합휴양지인 리조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1995년 4월에 대기업들의 레저산업 진출을 허용해 줌으로써 많은 국내기업들과 지방자치 단체들은 리조트사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간주해 적극 진출하고 있다. 국내기업과 지자체들이 발표한 리조트단지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리조트단지 수를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6년 말 현재 13개소에 달하고 있는 리조트단지는 2000년까지 총 2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제주지역 25개소, 강원 폐광지역 24개소 등을 포함해 60개소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들 리조트단지들이 단순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되는 리조트단지 수는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리조트와 앞으로 계획될 리조트를 감안해 현재 계획분의 2/3가 건설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2005년까지의 리조트단지 수는 총 60개소로 지금보

〈표-5〉 한국의 레저관련 지표 추이

(단위: 10억원, %)

| | 레저시장 규모 | |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액 (B) | A/B (%) | 총 인구 (천명, C) | 1인당 연간 레저 비용 (원, A/C) |
|------|---------|------|------------------|---------|--------------|-----------------------|
| | 금액 (A) | 증가율 | | | | |
| 1980 | 632.9 | - | 24,343.0 | 2.6 | 38,124 | 16,601 |
| 1985 | 1,558.8 | 7.1 | 47,236.2 | 3.3 | 40,806 | 38,200 |
| 1990 | 4,169.6 | 13.6 | 94,772.2 | 4.4 | 42,869 | 97,264 |
| 1991 | 5,431.8 | 30.3 | 113,161.8 | 4.8 | 43,268 | 125,539 |
| 1992 | 5,992.1 | 10.3 | 127,491.6 | 4.7 | 43,663 | 137,235 |
| 1993 | 6,776.7 | 13.1 | 141,223.0 | 4.8 | 44,056 | 153,820 |
| 1994 | 7,922.7 | 16.9 | 161,688.2 | 4.9 | 44,453 | 178,226 |
| 1995 | 9,143.6 | 15.4 | 182,872.1 | 5.0 | 44,851 | 203,866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보」에 의해 기아경제연구소에서 재작성함.

〈표-6〉 한국의 레저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조원, %)

| | 1995 | 2000 | 2005 |
|------------------------------|--------|-------|-------|
| A. GDP | 351.3 | 497.4 | 665.6 |
| B. GDP에서 차지하는 레저관련 지출 비율 (%) | (2.63) | (3.2) | (3.7) |
| C. 협의의 레저시장 규모(A×B) | 9.14 | 15.9 | 24.6 |
| D. 경마 매출액 | 2.1 | 6.0 | 11.0 |
| E. 경륜 매출액 | 0.7 | 1.0 | 2.5 |
| F. 광의의 레저시장 규모(C+D+E) | 12.0 | 22.9 | 38.1 |

주 : 1995년 불변가격.

다 4.6배 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레저산업의 총체적 전망

1. 레저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레저시장 관련 규모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일본의 경우, 여가 개발센터에서 매년 발행되는 「레저백서」를 통해 레저시장의 규모, 시장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상세한 자료가 없거나 분류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중 '교양·오락비'를 기준으로 레저시장 규모를 산정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레저시장 규모(경상가격 기준)는 1995년에 9조1,4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시장규모는 1995년 기준으로 철강이나 자동차산업의 절반 수준이고 백화점을 포함한 소매업, 자동차부품, 의류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액에서 레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4%에서 95년에는 5.0%로 매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또한 레저비용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1.9%에서 90년에 2.3%, 그리고 95년에는 2.6%로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연간 레저관련 지출비용은 1985년의 3만 8천원 수

준에서 90년에 9만7천원, 그리고 1995년에는 20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레저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상 成長期에 진입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의 한국 레저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을 제외하고는 70년대 중반의 일본 레저산업과 비슷한, 즉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레저시장 전망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6~2000년 동안 연간 7.2%씩, 2001~2005년 동안 연간 6.0%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레저수요의 증대로 레저관련 지출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2.32%에서 95년에는 2.6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레저산업은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레저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의 2.63%에서 2000년에는 3.2%, 그리고 2005년에는 3.7%로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리나라 레저시장 규모는 1995년 9조1,400억원에서 2000년에는 14조9천억원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22조6,000억원으로 95년보다 2.5배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오락성 레저인 경마·경륜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1995년의 레저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에서 2000년에는 22조9,000억원, 그리고 2005년에 38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레저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상 成長期에 진입해 향후 2005년경까지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2005년 이후에는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의 일본처럼 완만한 성장세에 그칠 전망이다. ▲